우리동네 돋보기

수원상의·산단공, 자선골프대회 열어 1천200만원 기탁



수원상공회의소(수원상의)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역 기업인 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88CC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가, 자선기금 1천200만 원을 모아 수원특례시 공유냉장고에 전달했다. 수원특례시 공유냉장고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식료품 등을 기부하고 필요한 이웃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지역사회 나눔 사업이다. 김재옥 수원상의 회장은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지역 기업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정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최현주 수원특례시 첨단산업AI국장, 박종환 수원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참가했다. 강소하기자